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통계로 말한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목회데이터연구소 자용근 김선일

numbers
vol. 301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Brief

부흥하는 교회, 소형교회도 상당수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일본·중국 인식
- ② 한일 국민 소득 비교

2025.9. 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소형교회도 상당수 있다!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통계로 말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8월 초 단행본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부흥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책 제작을 위해 전국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 인터뷰(목회자 일부 대상)를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5가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개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는 교회
는 교회

지용근 김선일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조사

조사개요

구분	목회자 조사		성도 조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조사 대상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증가 & 향후 5년간 교인 증가 예상하는 담임목사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감소 & 향후 5년간 교인 감소 예상하는 담임목사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증가 & 향후 5년간 교인 증가 예상하는 성도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감소 & 향후 5년간 교인 감소 예상하는 성도
표본 규모	각각 160명(유효표본)		각각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유의할당 추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5년 3월 26일 ~ 2025년 4월 9일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교회 현황과 과제] 부흥하는 교회, 소형교회도 상당수 있다!

- 부흥하는 교회를 지역크기와 시무교회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도시(48%)와 100~500명 미만(38%)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다만 대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도 22%가 부흥하고 있으며, 특히 50명 미만 소형교회도 3곳 중 1곳 이상(37%)이 부흥하는 교회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회 부흥이 단순히 대도시나 대형교회만의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표] 부흥하는 교회 지역크기/교회 규모별 구성비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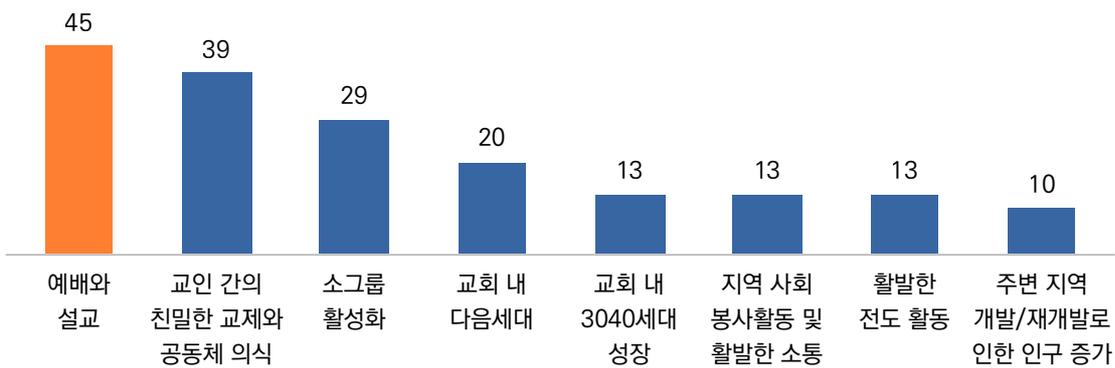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크기	대도시	48%
	중소도시	31%
	읍/면	22%
시무교회 규모	30명 미만	16%
	30~50명 미만	21%
	50~100명 미만	16%
	100~500명 미만	38%
	500명 이상	9%

37%

교회 부흥의 핵심 내부 동력, 예배/설교 > 소그룹/공동체성!

-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 부흥 요인으로 '예배와 설교'(45%)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39%, '소그룹 활성화' 29% 등의 순이었다.
- 예배와 설교가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2~3위에 해당하는 공동체성과 소그룹 활성화가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핵심 내부 동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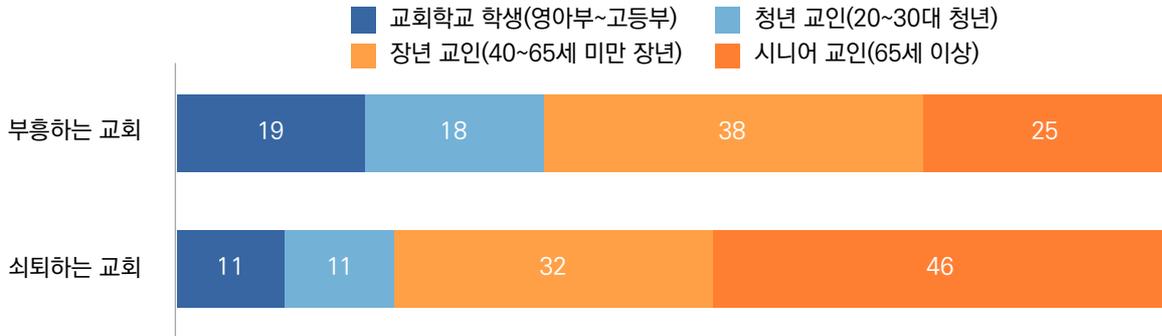
[그림] 교인 부흥 이유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8개, %)



쇠퇴하는 교회, 고령 교인 집중!

- 교인 연령별 구성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19%, 청년 18%, 장년 38%, 시니어 25%로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시니어가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은 각각 11%에 그쳤다. 이를 인구 구조 그래프로 보면 역피라미드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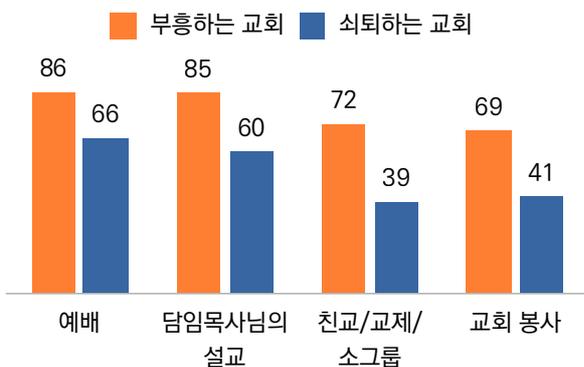
[그림] 교인 연령별 구성비(목회자, %)



부흥하는 교회 성도/목회자, 모든 사역에서 만족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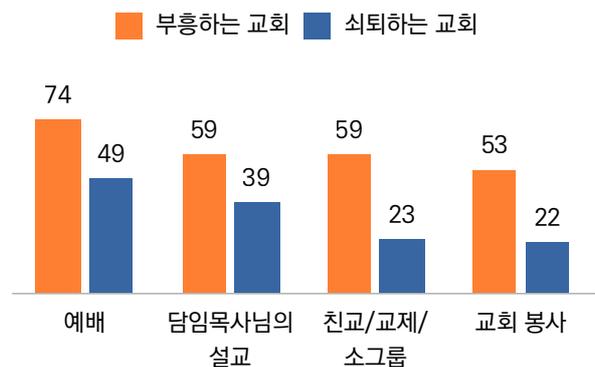
- 목회자와 성도의 시무 교회 사역별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성도가 목회자보다 높은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전반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예배와 설교 외에는 만족도가 성도는 50% 미만, 목회자는 30% 미만에 그쳤다.
- 부흥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만족도'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영적으로 활기참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 교회 사역별 '성도' 만족도
(매우+약간 비율*, 상위 4개, %)



*5점 척도

[그림] 시무 교회 사역별 '목회자' 만족도
(매우+약간 비율*, 상위 4개, %)



부흥하는 교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진다!

- 앞서 신앙상태에 관해 언급했는데, 실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성도의 신앙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1단계 신앙 비중은 낮고, 4단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성도의 신앙수준 즉 영성이 쇠퇴하는 교회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교회의 '부흥'에 있어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상관도가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부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성도의 신앙수준 비교

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신앙단계	1단계	11%	18%
	2단계	24%	25%
	3단계	40%	39%
	4단계	25%	18%
전체		100%	100%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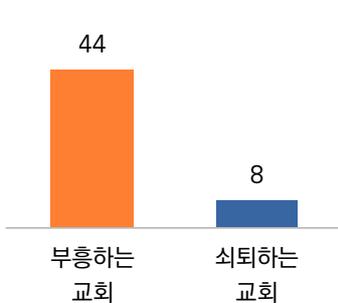
02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① 사역 참여 문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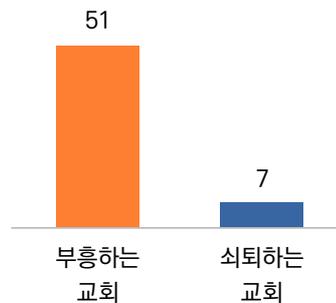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도 늘고, 성도 사역 참여도 활발!

-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역 참여 문화이다.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수(44%)와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51%) 모두 절반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쇠퇴하는 교회는 각각 8%, 7%에 그쳐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활발한 사역 참여 문화를 통해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사역 프로그램 수 '증가' 비율 (목회자, 약간+매우 증가 비율, %)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 '증가' 비율 (목회자, 약간+매우 증가 비율, %)



Note) 책에서는 '부흥의 4가지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14가지 요인(특징)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임.

여기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①~④'로 명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요인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봄.

봉사자 증가, 교회 부흥의 핵심 지표!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봉사자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52%에 달했으나, 쇠퇴하는 교회는 2%에 불과했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교인 수 증가와 가장 높은 상관도(Corelation)를 보인 항목이 바로 '봉사자 증가'였다. 봉사자의 증가가 교회의 부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봉사자 수 변화(목회자, %)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03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② 미래지향적] 코로나 이후 교회부흥과 쇠퇴, 3040이 가르친다!

- 코로나 이후, 부흥하는 교회의 47%가 3040세대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3%)와 큰 격차를 보였다.
- 주목할 점은 3040세대의 증가가 교회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회 규모보다 각 교회의 특성과 사역 전략이 3040세대의 유입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코로나 이후 3040세대 수 변화(목회자, %)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다음세대 사역, 미래 뿐 아니라 현재의 교회 부흥에 결정적 변수!

-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수 변화를 살펴본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다음세대의 성장이 분명하게 체감돼,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4%)에 달했다.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단 5%만이 증가, 78%가 감소하여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수 변화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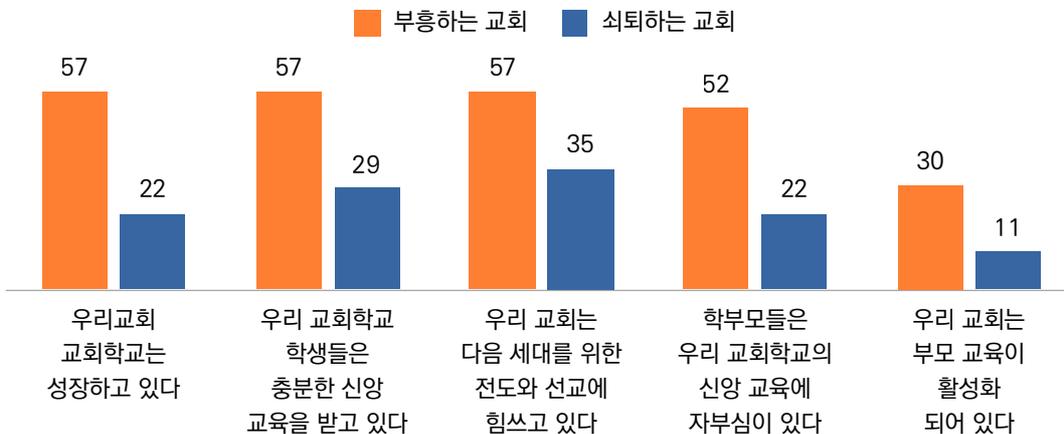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교회의 부흥, '다음세대 사역'과 긴밀히 연결!

- 부흥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와 비교했을 때, 다음세대 사역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뚜렷하게 높았다.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다'(57%),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57%),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57%), '학부모들이 교회학교 신앙 교육에 자부심이 있다'(52%)에서 긍정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 비록 '부모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30%)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쇠퇴하는 교회(11%)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다음세대 사역 평가 (교회학교를 운영 중인 목회자,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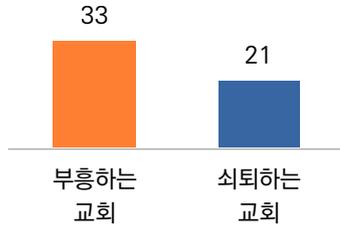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③ 대위임령에 헌신] 부흥하는 교회, '전도 실천'은 쇠퇴하는 교회의 2배 이상!

-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설교 빈도가 쇠퇴하는 교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교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월 1회 이상 한다는 담임목사 비율은 24%로, 쇠퇴하는 교회(15%)보다 높았고, 전도 관련 설교 역시 33%로 쇠퇴하는 교회(21%)보다 앞섰다.
- 이러한 차이는 교인들의 전도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 교인의 56%가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 교인(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즉, 부흥하는 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와 교인들의 실천이 맞물려 전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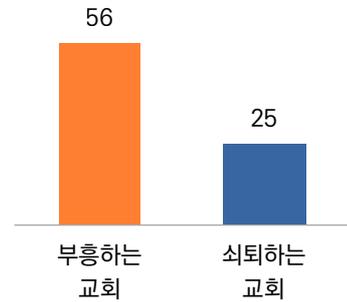
[그림] 담임목사 본인의 선교 주제 설교 빈도 (목회자, 월 1회 이상 비율, %)



[그림] 담임목사 본인의 전도 관련 설교 빈도 (목회자, 월 1회 이상 비율, %)



[그림] 출석교회 교인 전도 실천 정도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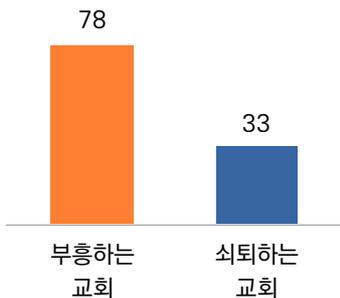
*5점 척도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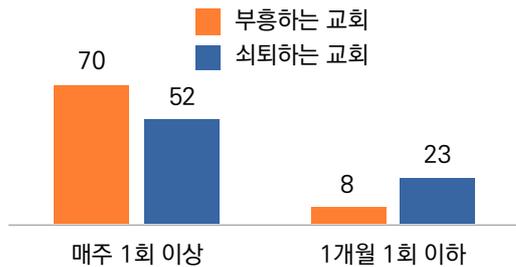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④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 사역, 교회 부흥에 결정적 변수!

- 신앙 소그룹의 활성화는 부흥하는 교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78%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33%)를 크게 앞질렀다.
- 또한 소그룹 모임의 빈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부흥하는 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그룹 모임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52%였다. 반대로 '한 달에 1회 이하'라는 응답은 쇠퇴하는 교회가 23%로, 부흥하는 교회(8%)보다 높았다.
- 즉,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활동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활력과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림] 신앙 소그룹 모임 활성화 정도 (목회자, '매우+비교적 활발하다' 비율*, %)



[그림] 신앙 소그룹 모임 빈도 (신앙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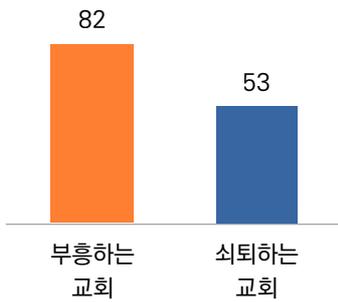
*4점 척도 (신앙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비율은 빼고 100%로 환산함)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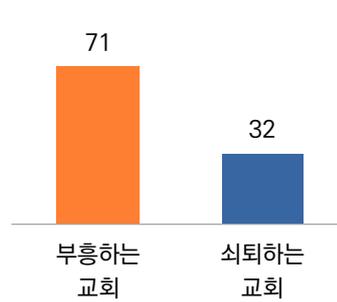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⑤ 변화 의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변화 수용적', '높은 개혁 의지' 보여!

- 교회의 시대 변화 수용도를 살펴본 결과,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82%가 '시대 변화에 따른다(적극적+어느 정도)'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53%)보다 29%p 높았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성도들의 개혁 의지(긍정률) 역시 부흥하는 교회가 71%로, 쇠퇴하는 교회(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는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바뀌려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교회의 시대 변화(개혁) 수용 태도
(목회자, '적극적+어느 정도 따르는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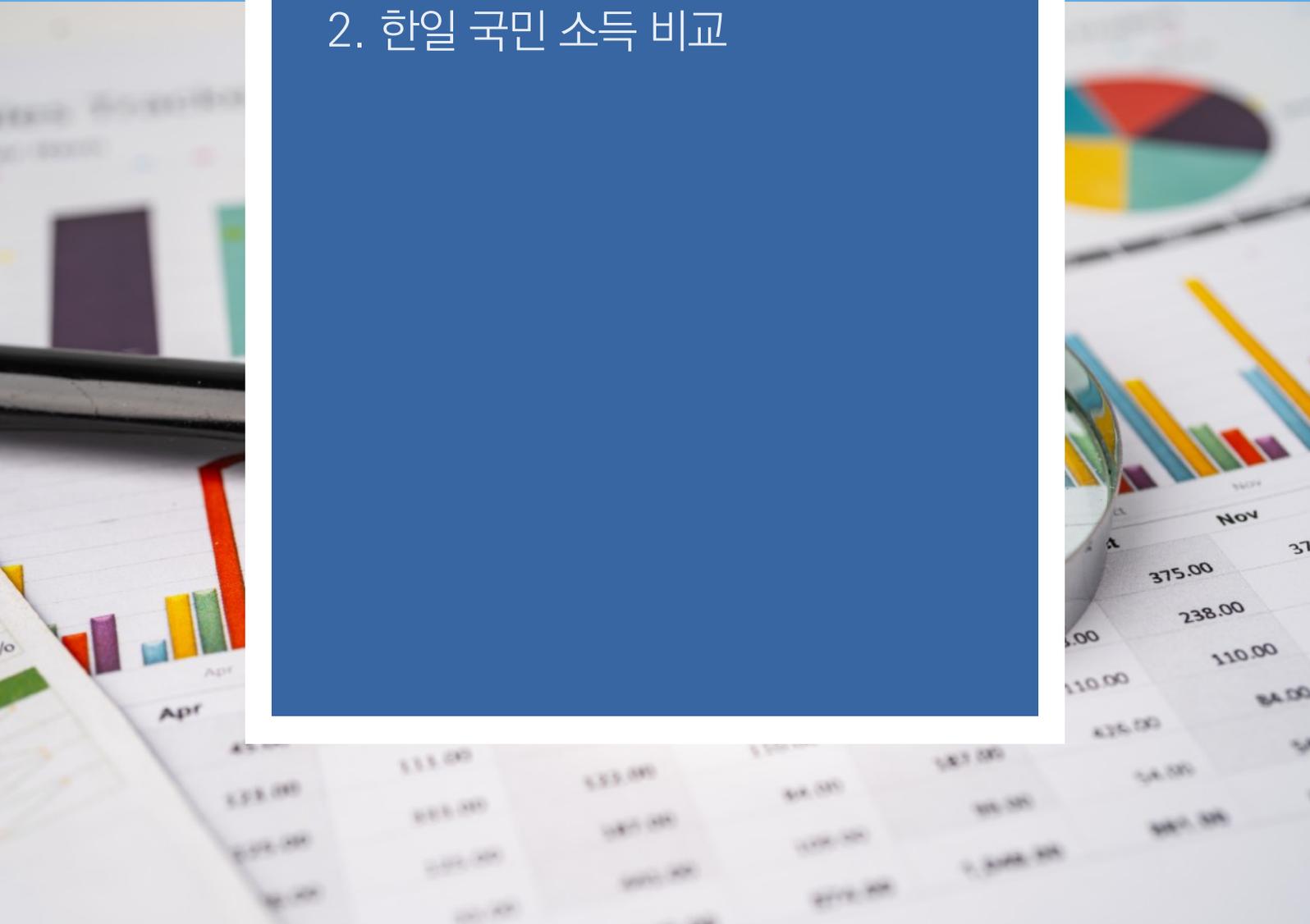
[그림] 성도들의 개혁 의지**
(목회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5점 척도, %)



*4점 척도(시대변화 적극적 따르는 편, 어느 정도 따르는 편,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편,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바꾸지 않는 편)
**개혁 의지는 교회가 스스로 내부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주체적인 결단을 의미함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일본·중국 인식
2. 한일 국민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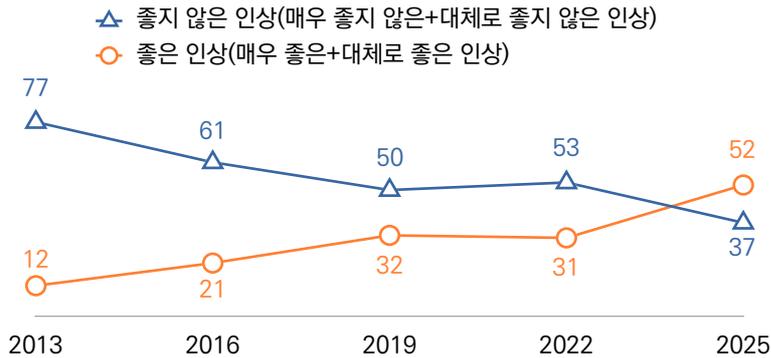




[한국인의 일본·중국 인식] 일본에 대한 호감도 52%, 역대 최고치 기록!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최근 발표된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일본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 먼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은 결과, 한국인의 52%가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좋지 않은 인상' 응답률을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그림] 일본에 대한 인상* 변화 추이 (2013~2025)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5점 척도 (매우 좋지 않은/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가짐, 매우 좋은/대체로 좋은 인상 가짐, 어느 쪽도 아님)

일본에 좋은 인상: 친절·식문화, 나쁜 인상: 역사·영토!

-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7%)이 가장 높았고,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는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83%), '독도 문제'(48%) 등의 순으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역사 및 영토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그림]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그러나 일본 국민은 절반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

- 2025년 기준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52%)이라고 응답했는데 반해,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51%)이라는 응답이 ‘좋은 인상’(25%)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 한국에 관한 인식이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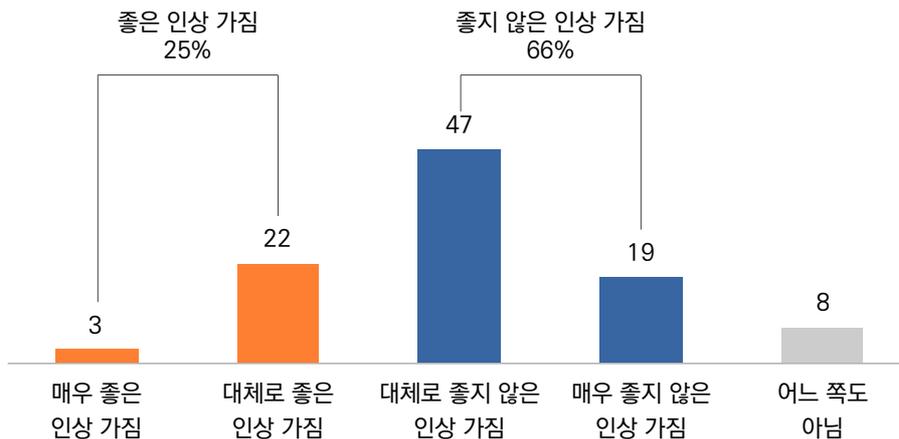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5점 척도 (매우 좋지 않은/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가짐, 매우 좋은/대체로 좋은 인상 가짐, 어느 쪽도 아님)
Note) 일본국민 대상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정상회담 이전에 진행되었음.

한국인 66%, 중국에 비호감!

- 이번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의 ‘동아시아 인식조사 자료’(2025)를 통해 우리 국민이 중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 중국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66%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쳐, 한국인의 대중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중국에 대한 인상 (2025, %)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6.12.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09명, 웹 조사, 2025.06.04.~06.05.)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중국 호감 이유: 큰 경제적 기회, 비호감 이유: 국민성

-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는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에’가 71%로 가장 압도적이었다.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58%)을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정치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 40%,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보복 때문’ 37%가 뒤를 이었다.
-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나, 부정적 인식은 국민성·정치체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그림]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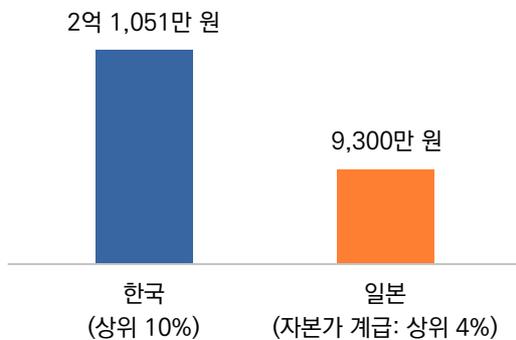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6.12.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09명, 웹 조사, 2025.06.04.~06.05.)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한일 국민 소득 비교] 한국, 일본보다 소득 양극화 더 심하다!

- 일본 와세다대 하시모토 겐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계급 사회」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 계급은 5개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최상위는 '자본가 계급'(기업 경영자나 이사진), 최하위는 '언더클래스'(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자·무직자)로 정의된다.
- 이를 한국의 상·하위 10% 소득 계층과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 원으로, 일본 자본가 계급(상위 4%)의 연평균 소득 9,300만 원보다 훨씬 높다.
- 반대로 한국의 하위 10%의 연소득은 1,019만 원으로, 일본 언더클래스(하위 14%)의 소득(2,000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 종합하면 한국은 상위 계층의 소득이 일본보다 훨씬 높고, 하위 계층의 소득은 일본보다 더 적어,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약 20배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한일 최상위계층 소득 비교



[그림] 한일 최하위계층 소득 비교



※출처: 주간동아, 일본 자본가의 '일 만족도' 36%로 가장 낮아, 2025.08.23.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801632/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2호 \(2025년 8월 4주\)](#)

- 한미정상회담, 주변국 정상 개별 호감 여부, 노란봉투법 (8월 통합 포함)

[일본은 냉랭, 한국은 호감?...엇갈린 한일 호감도](#)

한국경제_2025.8.30.

사회 일반

[올해 분만 예정자 30만4천명...2년 연속 출생아 증가 '청신호'](#)

연합뉴스_2025.8.26.

[국내 다둥이 출산율 세계 2위... 세쌍둥이 이상은 1위](#)

조선일보_2025.8.26.

[지난해 '비혼 출산' 출생아 5.8%...역대 최고](#)

여성신문_2025.8.28.

[국민이 뽑은 사회적 대화 필요 의제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연합뉴스_2025.8.28.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1년새 128% 증가...피해자 절반이 10대"](#)

연합뉴스_2025.8.28.

[국민 10명 중 8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를 동결·인하해야"](#)

조선일보_2025.8.25.

[지난해 자해·자살로 응급실 찾은 환자 비율 역대 최고](#)

조선비즈_2025.8.28.

[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범행 전 여성폭력 있었다](#)

국민일보_2025.8.26.

[\[단독\] "어차피 한국선 우리 못잡아"...악마의 전화, 65%는 중국 산둥성에서 걸려온다](#)

매일경제_2025.9.1.

아동 · 청소년 · 청년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적용](#)

중앙일보_2025.8.28.

[아기 울음소리 그치니 아이들 웃음소리도 똑...작년에만 유치원 153개 문 닫았다](#)

매일경제_2025.8.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나 죽으면 아무도 못찾을까봐, 잘 때 문도 안 잠가”...늙어가는 1인 가구](#)

매일경제_2025.8.25.

경제 · 기업

[공시생 4년 만에 반토막, 기업 취준생은 사상 최고치](#)

중앙일보_2025.8.26.

[일자리 증가 1만5000개뿐... 역대 최소 폭 상승](#)

국민일보_2025.8.27.

[AI 면접관, 사람보다 낫다? “합격률·근속률 모두 더 높게 나타나”](#)

조선비즈_2025.8.30.

[돌아온 슈퍼예산, AI혁신 3배로 증액... 국가부채 1400조 첫 돌파](#)

동아일보_2025.8.30.

[AI 대체 일반 개발자 ‘파리 목숨’... 최상위급 인력은 몸값 천정부지](#)

국민일보_2025.8.28.

[“韓여성, 남성보다 월급 29% 낮아”...임금격차 OECD 최대](#)

연합뉴스_2025.8.29.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상위 20% 평균가격 14억원 돌파”](#)

연합뉴스_2025.8.24.

건강

[4명 중 1명 “액상 전자담배, 껌보다 덜 해로워”](#)

국민일보_2025.8.26.

[30살 미만 ‘젊은 당뇨병’ 급증...저소득층 어린이 위험도 5배](#)

한겨레_2025.8.26.

[서울대병원 연구진 “수면제 처방 12년간 4배 늘어”](#)

디지털타임스_2025.8.29.

기독교 · 종교

[범위 좁아진 ‘우리 가족’... 교회, 가정 사역 강화 나서](#)

국민일보_2025.8.28.

[교회 흥망 가르는 핵심 열쇠는 3040·다음세대](#)

국민일보_2025.8.29.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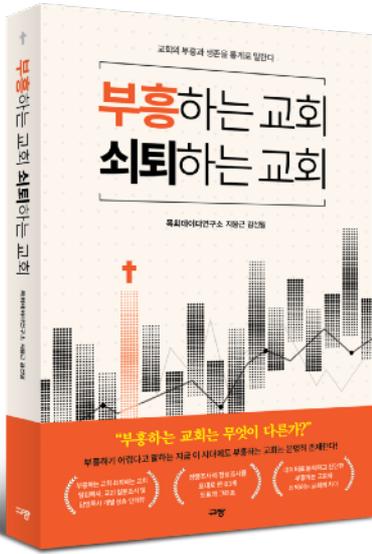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